

# 해외의약뉴스

아스피린은 자간전증의 위협이 있는 모든 산모들에게 도움이 된다.

## 개요

자간전증(preeclampsia, 임신중독증) 고위험 산모는 매일 81mg의 아스피린 복용이 유익하다는 권장사항이 발표되었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조산의 위험을 14%까지 줄일 수 있으며, 자궁 내 태아의 성장지연도 2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장사항은 아스피린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여성에게만 해당된다.

## 키워드

자간전증, 임신중독증, 임신합병증, 고위험 산모, 아스피린

미국 보건전문가 패널은 자간전증으로도 알려진 임신합병증의 고위험 산모는 임신 12주부터 저용량 (low-dose)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 권장사항은 미국 예방의료 대책위원회(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가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발견한 바로,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자간전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가진 고위험 산모들의 위험도를 24%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예방의료 대책위원회의 Jessica Herzstein 박사<sup>1)</sup>는 “자간전증 고위험 산모들은 이 증상의 예방을 위해 저용량의 아스피린(일일 용량 81mg)을 복용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사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조산의 위험을 14%까지 낮출 수 있으며, 자궁 내 태아의 성장지연(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도 20%까지 낮출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모와 아기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사는 자간전증은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질환으로 혈압이 상승하며, 흔히 임신 20주부터 뇨중과다한 단백질이 검출되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the American Congress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에 의하면 자간전증의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예방의료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자간전증은 전체 산모의 8%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임산부 중 약 4%에서 자간전증이 나타나며, 전체 조산의 약 15%가 자간전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미국 내 산모사망의 약 12%가 자간전증이 원인이다.

1) global medical director of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Herzstein 박사는 “자간전증의 최고 고위험군은 이전의 임신기간중에 자간전증의 병력이 있는 여성들이며, 특히 그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했던 여성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사는 그 외의 고위험군은 쌍둥이 또는 그 이상을 임신하거나, 만성고혈압,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 신장질환 또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들이라고 전했다.

Herzstein 박사는 미국 예방의료 대책위원회가 지난 1996년도에 이 주제를 살펴봤었지만, 당시에는 아스피린의 이러한 효과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간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스피린을 권장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후 새로운 임상시험의 수행 결과 아스피린이 고위험 산모에게 효과가 있다는 지속적인 증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자간전증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질환의 신호나 증상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현재의 권장사항은 임신 12주부터 매일 81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아스피린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여성에게만 해당된다. 아스피린과 연관된 가장 큰 위험성은 위장내 출혈(stomach bleeding)의 위험이다.

Herzstein 박사는 아스피린의 이러한 유익한 효과의 원인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연구진들은 아스피린이 어떻게 이러한 작용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중요한 유익성이 있고 위험성은 매우 작다는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아스피린이 어떻게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 예방의료 대책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9월 9일자 「the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되었다.

Jill Rabin 박사<sup>2)</sup>는 “연구진들은 자간전증의 원인과, 아스피린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권장사항은 믿을 수 있으며, 위험성보다는 유익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 원문정보 ■

MedlinePlus, 2014.9.8.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8266.html](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8266.html)

2) co-chief of the division of ambulatory care in the Women's Health Programs-PCAP Services, North Shore-LIJ Health System in New Hyde Park, N.Y.